

# 공공기관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기 불어넣나

### 정부, 나주 혁신도시 11곳에 권고...내년 경영평가 반영 관심 지난해 본사 5500명 160억원대...한전·농어촌·aT 등 추진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기로 하면서 지역소비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11곳을 포함한 129개 공공기업·준정부기관에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측은 "이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행여부가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경평) 성과급은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차등 지급된다. 공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들은 직급과 근태기간, 근무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성과급을 연말까지 받게 된다.

올해 성과급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가정한다면, 나주 혁신도시 본사 직원

5500여 명에 돌아가는 성과급은 16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나주 혁신도시 11개 기관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경영평가 성과급(일반 정규직)은 284만918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가장 높았던 공공기업은 평균 787만5000원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KDN이 74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19만3000원), 한국농어촌공사(245만7000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34만5000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28만5000원), 한국인터넷진흥원(116만8000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07만원), 한국전력거래소(96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89만9000원), 한전KPS(60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성과급지

급에 동참했다.

농어촌공사의 올해 성과급 지급 예상액은 총 900억원대로, 전체 정규직 6300명 가운데 800명이 나주 본사에 있다.

공사는 이달 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성과급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10억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임원 월급의 30%와 부서장 월급의 10% 1개월분인 약 1억8000만원을 반납했다. 공사 노동조합도 지난 3월 노조활동비 절감분 3억원으로 전국 지역농산물상품권을 구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성과급 지급을 마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5000만원에 달하는 나주사랑상품권 구매에 동참했다. aT는 나주사랑상품권 외에도 다른 지역사랑상품권(110만원), 온누리상품권(1320만원) 등 총 643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나주 본사에만 1800명의 직원을 둔 한전은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한전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안을 노조 측에 제안한 상태로, 단체협약을 거쳐 지급 여부와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본사 직원 1000여 명으로, 나주 전력그룹사 가운데 한전 다음으로 큰 규모인 한전KDN은 오는 8월까지 노사 단체협약을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2월부터 이달까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8곳은 1억3527만원 상당 나주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 조례에 따라 1인 구매액이 70만원, 기관당 기본 1000만원으로 한정됐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해 한도액을 높이려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코로나19 고등분담 차원에서 직원 성과급 외에도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성과급의 10% 이상을 자율적으로 반납할 것도 권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인식(오른쪽) 농어촌공사 사장과 박종석 노조위원장은 최근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 청년 170만명 학교 졸업 동시 '백수'

### 통계청 5월 부가조사...미취업자 전년보다 12만명 늘어

학교를 마쳤는데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한 청년층(15~29세)이 올해 17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미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12만명 늘어난 166만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졸업·중퇴자 478만7000명 가운데 35%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는 셈이다.

미취업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인 57.5%로 한 해 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1.3%포인트 줄어든 16.9%, 2년 이상 3년 미만은 0.3%포인트 하락한 8.8%였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취업 상태인 이들의 비율은 16.8%로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미취업자 가운데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38.0%)를 한 이들의 비율은 한 해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그냥 시간 보냄(23.9%)은 2.3%포인트 올랐다. '여가활동' 등은 14.4%, 구직활동은 14.2%, 육아가사는 9.5%로 나타났다.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취업자는 31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1.0%), 도소매·음식·숙박업(25.2%), 제조업(16.1%)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4.6%), 농림업(1.2%) 분야로 가는 청년들은 적었다.

청년층 가운데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등 취업시절을 준비하는 이들은 한 해 전보다 9만명 늘어난 80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28.3%)이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체(24.7%),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20.6%), 언론사·공영기업체(13.9%), 고시 및 전문직(8.1%), 교원임용(4.3%) 순이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47%)과 고용률(42.2%)은 1년 전 보다 각각 1.4%포인트 떨어졌다. 졸업자 가운데 취업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고졸이하 81.5%, 대졸이상 87.1%로 각각 1.1%포인트, 1.2%포인트 감소했다. 대학졸업자들은 졸업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4년 3개월 걸리며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0.2개월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지역 한 농협 상호금융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전남 농협, 31개 사무소 상호금융대상

### 재무상태·수익개선도 등 평가...전국 최다 수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전남 31개 농·축협이 올해 2분기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상을 받으면서 최다 수상 사무소를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호금융대상은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와 수익개선도, 고객서비스, 영업능력향상, 핵심인재 육성 등 24개 항목의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 2분기에는 전국에서 123개 농·축협이 선정됐으며, 전남은 가장 많은 31개 조합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나주농협(조합장 허철호), 노화농협(조합장 김중량), 안양농협(조합장 김영중), 장흥농협(조합장 김재은)이 이름을 올렸다.

해남 계곡농협 등 27개 농협은 우수상과 장려상에 각각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28.66 (-0.17)	↓ 금리(국고채 3년) 0.810 (-0.008)
↑ 코스닥 794.99 (+4.41)	↓ 환율(USD) 1195.30 (-2.50)

## 광주 창업기업 육성·투자환경 조성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현대차 협약...창업펀드 조성 등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는 광주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성장 유망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혁신센터와 현대차는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창업펀드 조성 ▲인공지능(AI), 자동차, 수소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공유 가능한 자원(정보·기술·인력)과 인프라(제로원·마케팅·네트워크) 상호 활용 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혁신센터는 '제1호 G-IN 개인투자조합'에 이어 두 번째 투자펀드인 '제2호 G-IN 개인투자조합'(가칭)을 50억 규모로 조성해 지역 초기 스타트업에게 시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후속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광주혁신센터와 함께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206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했다.

현대차 전문가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 등 25억2000만원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출 970억5000만원, 투자유치 300억2500만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익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동반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고, 지역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창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꽃으로 엮은 꽃으로 오는 소리

조선의 낭송 시집

시인 조선의

"조선의 시인은 꽃을 통해 자신의 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이 던지는 언어를 깊이 공감하고 상상력과 결부하여 형상화한다. 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당연한 자연이다. 그런 사실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은 진정성이 시적 상상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금번 여섯 번째 시집으로 엮어낸 시편들의 문학적 함의와 정서에 대한 호기심은 가독성을 사유토록 야기한다. 그 시편들 속에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진정하게 이뤄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탐색과 모색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철영 시인·문학평론가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으로 오는 소리」